

## 숲으로 가는



### 세 가지 방법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모 카드 회사의 카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혹의 언어였다. ‘카드’도 없고 시간도 없고 떠날 용기도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여러 출판사에서 친절하게도 숲으로 떠나는 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 ‘경험’과 ‘추억’이라는 코드로 읽을 수 있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시튼의 《작은 인디언의 숲》은 그야말로 대리만족(?)을 하기에 적합하다. 일반적인 책 사이즈(신국판)보다 다소 큰 판형과 적지 않은 페이지지만 화가로도 활동했던 이력답게 나뭇잎이며 동물의 발자국, 인디언의 티피까지 생생하게 그려낸 시튼의 삽화 덕분에 땀 흘리지 않고도 ‘인디언들의 숲’을 가뿐하게 정복할 수 있다.

1903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시튼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안이라는 소년과 샘, 가이 세 명의 아이들이 숲에서 3주간 생활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야영생활이지만, 1800년대의 ‘생거’, 즉 ‘미개척 삼림지대에 형성된 정착지’가 배경이라 현재의 야영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디언과 야생의 생활에 폭 빠진 안은 엄격한 아버지와 성경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믿는 어머니, 형제들은 많았지만 공감대를 나눌 수 없었던 가족에 둘러싸여 있는 캐나다 소도시의 소년. 풀과 새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마음에 꼭 드는 왕국’, 숲에 대한 열망을 가라앉히던 안은 열네 살이 되었을 때 몸이 약한 걸 염려한 의사의 충고 덕분에 윌리엄 래프튼 농장으로 오게 된다. 래프튼의 농장은 캐나다로 이주 온 아일랜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생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숲이 가까이에 있었다. 안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과는 다르게 사냥꾼이 되고 싶은 래프튼의 아들 샘과 이내 절친한 친구가 된다. 두 소년은 집안 일을 거두고 남는 자유 시간에 티피(북미 인디언의 원뿔꼴 천막)를 만들며 숲속 생활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가고, 샘의 아버지인 래프튼과는 원수인 캘럽이라는 남자의 도움으로 인디언의 생활로 한발 한발 근접해 들어간다. 그 와중에 인근 농장주의 아들인 가이가 합세하게 되고, 래프튼으로부터 ‘휴가’를 얻은 안과 샘은 자신들이 숲속에 만든 티피 속에서 야영생활을 시작한다. 인디언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지만 온통 인디언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시튼의 삽화로 재현된 ‘워보닛(독수리 깃으로 꾸민 북미 인디언들의 예장용 전투모)’ 만드는 법, 티피 만드는 법, 등 인디언들의 생활사를 눈앞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생생함이다.

또한 시튼이 16년 동안 보이스카우트 단장으로 일했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야영에 대한 묘사와 방법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야영생활을 하며 안은 자신들이 만든 인디언 북에 씌운 가죽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인디언이 되어간다. 소년들의 야영 덕분에 오랜 시간 반목해 오던 사람들은 화해하게 되고 ‘숲’에 대한 안의 열정을 공유하게 된다.

우리는 안과 샘에게 주어졌던 “2주 동안의 휴가와 1주 동안의 연장 휴가” 기간을 얻지 못하고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시튼의 추억과 경험을 빌려서라도 ‘작은 인디언의 숲’을 마음 속에 만드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작은 인디언의 숲》 E. T. 시튼 글·그림 | 햇살과나뭇꾼 옮김 | 두레 | 456쪽 | 값 9,800원

《내 추억 속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엮음 | 북갈럽 | 216쪽 | 값 7,000원

《나를 부르는 숲》 빌 브라이슨 지음 | 홍은택 옮김 | 동아일보사 | 416쪽 | 값 9,500원

### 《내 추억 속의 숲》



시튼의 숲을 떠나 이제 한국인들의 숲으로 돌아오기 위해 《내 추억 속의 숲》을 펼치면 이현주 목사 등 생태보전시민모임 회원들의 다양한 숲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현주 목사는 러시아의 거대한 삼림이나 독일의 '검은숲' 같은 데가 숲이고 우리네의 산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고정관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찌 거대한 숲만 숲이라? 나무와 풀과 바위가 조화를 이루며 본디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 있는 곳이면 숲”이 아니겠냐며 걷는 속도를 줄이고 숲과 인간을 함께 돌아보기를 권한다. 지리산부터 동네의 야트막한 야산 혹은 동산까지에 얽힌 35명의 추억들을 엮으며 파괴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하자는 게 이 책의 의도이다. 필자가 여럿인 만큼 숲에 대한 예찬부터 진드기에 대한 경험 때문에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점점 더 높은 담장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걱정”스럽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글의 성격도 다양하다.

### 《나를 부르는 숲》

비록 실패한 애플래치아 트레일 종주기이지만 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데는 저자의 유쾌한 유머가 큰 역할을 한 듯하다. 미국의 애플래치아 트레일은 3,360킬로미터의 장거리 등산코스로 조지아 주에서 메인 주까지 14개 주를 관통하는, 종주 기간만 최소 5개월이 소요되고 혼자 종주하



는 일인 코스.

저자는 “제발 트레일의 일부분이라도 같이 갈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는” 문구를 넣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이 무모한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25년 동안 거의 만나지도 않았던 고교 동창생 스티븐 카츠로부터 동행해도 좋으냐는 연락을 받고 함께 떠나기로 한다. 그러나 카츠는 “오손 웰즈를 연상”시킬 만큼 살이 쪼여 나타나고, “20미터를 걸어온 사람치고는 너무 심하게 숨을 내쉬”는 종주 동반자로는 최악의 상대. 당연히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종주에 실패하지만, 친구(타인)에 대한 애정을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그러니 브라이슨의 말처럼 ‘시도’ 했다는, 애플래치아 트레일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추억은 풍요로워진다. 히말라야, 후지 산, 킬리만자로 같은 세계의 유명한 숲으로 가지는 못할지언정 북한산으로 향하는 배낭을 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숲은 한 발짝 다가온다. 배낭에 숲에 관한 책들이 없혀진다면 그 산행은 한층 풍성하지 않겠는가. ☞

양선희기자